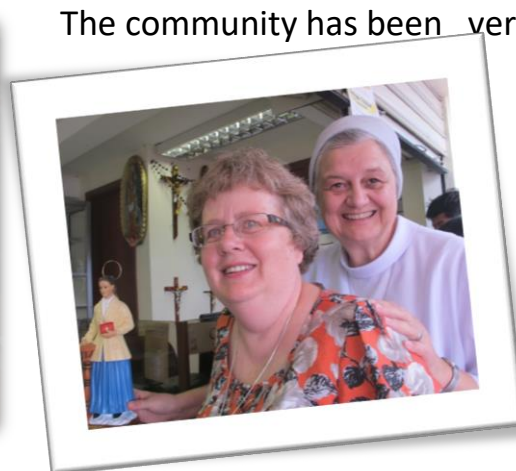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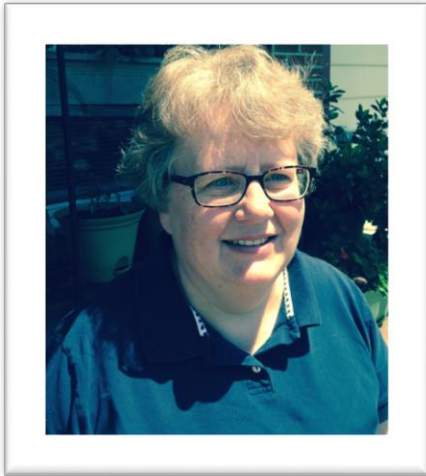
Hello, I am Sister Rachel Blais. I am originally from Maine and grew up in a French speaking household. I graduated from Merrimack College in 1982 with a Psychology/Religious studies degree. Right after graduation, I began working at Queen of Peace Church in Hawley, PA as a youth minister. This was such a new experience for me, since my only experience of church, was going to mass on Sundays. I discovered that I loved working for the church. My understanding of church grew because of my ministry and my course work at LaSalle University in Philadelphia PA. I received a master's degree

from LaSalle. It was at LaSalle that I meet our Sister Mary Clark, who invited me to visit her at St. Theresa's convent in Munhall. I was so impressed with the community that I entered on August 28, 1986. I remember saying that I wanted to continue to work in a parish, and not in a school. Yet, a few years later, I began ministry for ten years as a high school campus minister/religion teacher. It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and I learned to speak in public. I was really shy and did not like to talk in public. I was so shy, that I hardly participated in classes during my college years.

When I had the opportunity to be a college campus minister for St. John University Parish in Morgantown, West Virginia, I was so happy. It was great to be back in a Parish. I did not realize how much I missed being in a parish. Currently, I am working at St. Mary Church in Star City, West Virginia. I am the director of the RCIA program and I do home visits for the elderly. This is very different from my first parish position as youth minister. There have been many blessings working with the older population. I have been with several people when they passed. They were comforted because "Sister" was with them. Often, I work with the families to prepare for the vigil and funeral mass. I lead most of the gravesite services. Fr. DiBacco, my current pastor, has truly helped me to grow in my ministry. I am no longer nervous leading the various religious services. I am very at home working in a parish and I am blessed to be at St. Mary.



The community has been very supportive of me and my professional growth. Between my ministry and my community, I am amazed at what I am able to achieve.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블레이크 수녀입니다. 제 고향은 메인 주(Maine: 미국 동북부의 주)이고 불어를 사용하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1982년 메리맥(Merrimack) 대학을 졸업 (심리학/종교학 학사) 하자마자 펜실베이니아주 Queen of Peace(평화의 모후) 본당에서 청년사목 담당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늘 주일 미사만 참석하던 제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성당에서 일하는 게 제겐 아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성당에서 청년 사목 활동을 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라살(LaSalle)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교회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고 이때 Mary Clark(메리 클락) 수녀님도 만나게 됐어요. 한 번은 수녀님의 초대로 먼홀(Munhall)에 위치한 성녀 데레사 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6년 8월 28일 입회하게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늘 사람들에게 학교가 아닌 본당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년 후에, 결국 본당이 아닌 고등학교 교목 및 종교 교사로 파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0년 동안 일을 했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아주 좋은 체험이 됐고 이 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방법도 나름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수줍음을 많이 타서 거의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무척 꺼려 했었거든요. 얼마나 부끄럼을 댔는지 대학교 다닐 때 수업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모건타운(Morgantown)에 있는 세인트 존 대학 (St. John University) 본당에서 학생들이 대상으로 사목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정말 기뻐합니다. 다시 본당에서 일하게 돼서 참 좋았어요. 그 때 저는 새삼 제가 본당 사목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현재 저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스타시티(Star City)에 있는 세인트 메리(St. Mary) 본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담당하고 있고 본당 어르신들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청년 사목과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한다는 건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곁에 있었는데, “수녀”가 함께 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위로를 받으시곤 했습니다. 장례 미사를 준비하고 연도를 바칠 때 고인의 가족과도 함께 일을 합니다. 묘지에서의 전례는 대부분 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코(DiBacco) 주임 신부님께서도 제가 사도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 전례 행사를 준비하는 데 두렵지 않습니다. 본당 사도직은 제게 참으로 많은 기쁨을 안겨 주고 있고 특히 세인트 메리 본당에서 일하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수도 공동체 역시 제게 큰 디딤돌이 돼 주었습니다 사도직과 공동체 생활 안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겐 경이로움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